



Vietnam Sau

베트남팀의 12월 이야기 ★

<Disabled school and the day of disabled>

@12월 1일~ 12월 6일

글: 김민호 단원

어느 새 시간은 야속하게 흘러 2011년의 마지막 달이 왔습니다. 한국은 초겨울의 쌀쌀한 공기가 감돌기 시작할거라 생각됩니다. 우리 베트남 팀은 12월을 'Disabled school'에서 시작했습니다. 그 동안 홍안유치원에서 활동을 계속 해오던 참에 새로운 기관을 방문하게 되어서 또 다른 기대를 품고 'disabled school'로 향했습니다.

'disabled school' 역시 베트남 ymca의 산하기관으로 학교의 개념보다는 장애인 분들의 모임이 이루어지는 곳이었습니다. 장애인분들이 자유롭게 방문하며 컴퓨터도 배우고 십자수, 비즈공예 등등 다양한 활동을 하는 소모임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베트남 팀은 12월 1일부터 12월 6일까지 토요일을 포함하여 5일 동안 'Disabled school'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첫날에는 3명이 단원만이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김민호 단원은 복통으로, 황주희 단원은 조모상을 당해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3명의 단원들은 기관에 방문하여 인사를 나누고 오전에는 십자수를 배웠습니다. 십자수는 고등학교 때 이후로 오랜만에 해보아서 그런지 처음에는 낯설고 속도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할머니 선생님께서 차근차근 가르쳐 주시고, 무엇보다 크리스마스를 대비해서 귀여운 캐릭터를 준비해주셔서 즐겁게 집중해서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들은 너무 집중해서 점심시간이 온 줄도 몰랐습니다. 원장선생님이 가끔씩 카메라 플래시를 터뜨릴 때 빼고는 고개를 들지 않을 정도였으니…….

점심은 'Disabled school'의 선생님들과 방문하는 친구들과 같이 탁자에 둘러앉아 맛나게 먹었습니다. 음식을 준비해주시는 어머니가 한 손이 불편하셔서 팀원들이 하루씩 돌아가면서 부엌 보조를 했습니다. 식사가 끝나면 팀원들은 설거지를 하고 오침을 했습니다. 오침이 끝나고 오후에는 한국의 아리랑 같은 베트남의 전통노래를 배웠습니다. 'Disabled school'에 영어도 잘하시고 유쾌하시고 재미있는 할아버지가 계셨는데 그 분이 노래를 정말 흥이 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다만 한 가지……. 한 노래를 배우는데 몇 십번의 무한반복을 해야 했습니다. 입이 열열할 정도로…….

노래시간이 끝나고 이어서 깡통을 이용해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선생님은 'Disabled school'에서 원장선생님의 보조로 일하고 있는 친구였습니다. 이 친구는 몸이 불편한 곳이 있는 친구가 아니어서 'Disabled school'의 대부분의 일을 맡아서 했습니다. 이 친구는 전기관련 일을 해서 전구를 이용한 크리스마스 장식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맥주 캔, 음료수 캔……. 우리가 너무나 쉽게 먹고 버리는 캔으로 황홀한 아름다움을 만들다니 사소한 물건의 소중함을 새삼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루 일과가 끝나고 집에 돌아온 우리는 십자수 선생님이 내준 숙제를 침대에 누워서 계속 했습니다.

둘째 날, 황주희 단원의 조모상으로 인해 4명의 단원이 'Disabled school'로 향했습니다. 오늘은 오전에 노래와 수화를 배우는 시간을 갖기로 했습니다. 노래는 역시...무한반복! 베트남어에는 성조가 있어서 그런지 노래자책도 흥겹고 무거운 음이 없어서 신나게 모두가 부를 수 있었습니다. 입을 많이 사용한 후에는 손을 사용하는 시간. 농아인들도 계셔서 우리는 농아인들과 대화를 할 수 있도록 수화를 배웠습니다. 영어와 같은 알파벳을 쓰는 베트남어여서 비교적 쉽게 배울 수 있었으나, 6개의 성조를 추가로 써줘야하는 통에 손이 쉬지 않고 움직여야만 했습니다. 수화를 배우는 시간에는 장현진 단원이 특히 열심히 했는데, 장현진 단원은 대학교에서 'Disabled school'과 같은 기관에 자주 방문해서 그런지 사람들과도 더욱 더 친밀하게 지냈습니다. 수화를 배우는 또 다른 이유는 12월 3일이 베트남의 '장애인의 날'인데, 그 때 농아인분들과 소통을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오후에는 비즈공예를 했는데, 어찌나 예쁜지 김민호 단원과 김남규 단원은 두 개씩 만들기 위해 필사적으로 안간힘을 썼습니다. 크기는 작지만 한 개당 약 1시간 30분정도가 소요되어서 집중해야만 두 개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Disabled school'에서는 이렇게 집중해서 하다보면 집에 갈 시간이라 해도 조금 더 있다가 가겠다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Disabled school'은 우리가 무엇인가를 해드리고 도와드리려고 간 느낌보다 우리가 많이 받고 가족의 포근함을 항상 느낄 수 있었습니다.



12월 3일. 장애인의 날! 이 날은 한국의 롯데월드나 에버랜드와 같은 베트남의 놀이동산에서 장애인을 초대해서 행사를 했습니다. 'suoi tien'이라 불리는 이곳은 호치민시의 장애인들을 모두 초대해 아침에는 'banh bao'와 점심에는 뷔페를 제공하고, 놀이공원을 모두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통이 큰 놀이동산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Disabled school'의 volunteer로 참가해서 덕분에 같이 즐거운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이 날에는 quoc gia 대학교의 사회복지학과 학생들도 volunteer로 참가해서 대학생들 간의 교류도 나눌 수 있었고, 베트남도 점점 사회복지에 관심을 많이 갖고 정부에서 힘을 쓰고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처음 가 본 베트남 놀이동산을 좋은 사람들과 좋은 추억을 남길 수 있어서 누구보다 행복했던 시

간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버스에서 팀원들간 나눈 대화에서 아직 베트남이 아쉬운 점은 장애인 분들이 돌아다니기에 인도나 건물의 구조가 너무 열악하다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베트남은 오토바이가 많은 나라인데다가 횡단보도와 신호등도 열악해서 길을 건널 때 정말 아찔아찔하기 때문에 장애인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즐거움과 아쉬움...그리고 생각이 많아지는 하루였습니다.



일요일은 쉬면서 피로를 푼 후 넷째 날 다시 'Disabled school'로 향했습니다. 어느 때처럼 밝은 미소로 반겨주시는 분들. 어느새 또 다른 집처럼 편안히 우리들도 자리에 앉아 오늘 배울 수업을 준비했습니다. 오전에는 수화와 무한 반복 노래수업을 했습니다. 수화도 이제 슬슬 늘어서 그 동안 배운 베트남어와 수화가 비슷할 정도(?)였습니다. 노래수업이야 언제나 흥겹고 신나는 시간이어서 주말의 피로를 깨우는데는 최고였습니다.

점심을 맛나게 먹고, 오후에는 다시 찾아 온 비즈공예 시간! 오늘은 돼지열쇠고리 만드는 날. 최고의 귀여움을 보여주는 돼지열쇠고리라 모두들 만드는 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다만 2시간가량 걸리는 작업이라, 두 개를 만들기 위해서는 손이 한시도 쉴 수 없었습니다. 팀원들 모두가 이렇게 집중해서 일을 하는 모습은 거의 처음이었는데 만약 베트남에서 'Disabled school' 활동을 한 달가량 했다면 모두 한국에 돌아가서 비즈공예를 계속 할지도 모른다는 허황된 상상도 해보았습니다.

<느낀 점>

'Disabled school'은 하나의 작은 운명공동체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같은 혈연은 아니지만 모두가 가족과 같이 사랑하며 지내는 모습을 보면 아니, 보지 않아도 그곳에 가면 몸이 자동으로 푸근해지곤 했습니다. 팀원들 모두가 'Disabled school'에 꼭! 다시 가고 싶다고 할 정도로 짧은 기간이었지만 우리들이 받고 온 사랑과 행복은 너무나 커다란 선물이었습니다. 지금 보고서를 쓰는 순간에도 'Disabled school' 가족들의 얼굴 하나하나가 그려집니다. 프로젝트기간에 어서 빨리 찾아뵙고 싶습니다.

Disabled school 소풍 그리고 여운 :)

@12월 7일, 8일

글: 황주희 단원

Disabled school은 가면 늘 우리가 도움을 드리고 오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한가득 받고 오는 것 같다. 이번 동물원 소풍도 그랬다. 며칠 안 되는 일정 중에 suoi tien에 이어 두 번

째 소풍이다.



우리가 호치민시 동물원을 안 가 본걸 어찌 아셨는지, disabled school 마지막 날, 우리에게 노래를 가르쳐 주신 유쾌한 할아버지께서 동물원에 함께 가자고 하셨다.

오전에는 변함없이 할아버지에게 노래를 배우고 수다를 떠 후 점심을 맛나게 먹고, 오후를 한 후 우리는 동물원으로 향했다. 오랜만에 동물원을 찾은 우리 단원들 역시 들떠있었고, 친구들 역시 그리 찾지 않은 외출에 들떠 있었다. 꽃들은 만개해있었고, 베트남에서

볼 수 있는 크디 큰 나무들은 여기서도 볼 수 있었다. 아쉽지만 동물들은 다들 잠을 자러 갔는지 호랑이, 새 등을 빼고는 제대로 볼 수가 없었다. 하지만 disabled school 식구들은 늘 언제나 즐겁다. 베트남 사람들의 특징일 수도 있지만, 백호 한 마리를 보고도 가지각색의 반응을 보이며 즐거워하신다. 우리나라 동물원에 비해서는 턱없이 열악한 시설이지만, 같이 있다 보면 한국에서 동물원에 가는 것보다 훨씬 즐거워하고 있는 우리를 보게 된다. 어느 곳이든 어떤 사람과 함께 하느냐가 중요한 거구나 라고 느낀 순간들이었다.

그리고 전부터 할아버지가 sinh to를 사주기로 약속하셨는데, 오늘은 일이 있어 가보셔야 한다며 다른 분에게 사주라는 말을 남긴 채 먼저 가보셨다.

다시 도착한 disabled school.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고 하니 만나는 사람마다 언제 한국에 돌아가는지, 집에 놀라오라는 이야기를 하신다. 흥시맛 나는 sinh to 한잔씩을 들고, 일정이 끝나는 시각이 넘어서도 자리를 일어나지 못한 채 우리는 자리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다.



마지막이 아니지만.. 어쨌든 이번 일정의 마지막 인사. 우리와 함께 한 언니 한분은 눈가가 축축해지시고, 다들 손을 꼭 잡아주시며 인사를 건넨다. 정말 며칠 함께하지 않았지만, 우리에게 이렇게 마음을 많이 내주시다니.. 감사하고, 다음번에는 꼭 받고 오지 말고, 함께 할 수 있는 뭔가를 해드려야지 싶은 시간이었다.

그리고 다음 날.. 할아버지와 long오빠는 진짜 약속을 지키러 우리가 일정을 마칠 저녁 즈음 호텔로 찾아오셨다. 까맣게 그 약속을 잊고 있던 우리는 처음에는 놀랐지만, 감사한 마음과 함께 저편으로 조금은 죄송스런 마음이 들기도 했다. 그렇게 우리 호텔 바로 옆에 있는 카페를 가서 sinh to와 커피를 시켜놓고 한참동안 수다를 떨었다. 우리에게 음료를 사주시고 그제야 뿌듯한 표정의 할아버지. 그리고도 뭔가 아쉬우신 모양인지 자꾸 자기 집에 놀러오라신다. 다음 주에 우리의 일정이 있어 약속을 못하긴 했지만, 다시 한 번 disabled school에 계신 분들의 따뜻한 마음을 느끼고, 감사했던 시간이었다.

YMCA Vietnam hop tac tre
with sewing workers at YMCA
@12월 12일 ~ 12월 16일
글: 김슬기 단원

YMCA에서의 활동은 감회가 새로웠다. 처음 9월 한 달간 카와 팀원들과, 라온아띠 방에서 베트남어 공부를 하며 즐거웠던 추억을 안고 다시 돌아온 와이 활동이었기 때문이다. 같은 장소에서, 다른 고민과 생각을 가진 다른 시간을 경험하는 기분은 형언하기 어려울 만큼 오묘했다는 게 더 맞을 수도 있겠다. 오래도록 잠겨있던 라온아띠 방에 들어가서, 얼마 지나지 않은 것 같던 시간들이 오래 된 기억 같다는 느낌을 받았고, 창문으로 바라다 보이는 아름다운 베트남의 하늘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는데 우리는 그 사이동안에도 많은 변화를 겪고 있음에 마음 한 구석이 저릿하기도 했다.

이런 저런 생각에 잠기기도 잠시였다. 와이에서의 홈스쿨은 반가운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어 즐거웠다.

우선, Co Hoa 아주머니. 늘 우리의 저녁을 해주시는 감사한 분이고, 한글을 배우려는 열의가 가득하시다. 누가 봐도 귀여우시고 좋은 분이다. 10월과 11월은 활동이 끝나고 늦게 와이에 도착하기에 아주머니는 뵙지 못하고, 차려놓으신 음식을 데워 먹고 가곤 했었다. 그러다가, 이 일주일 동안은 아주머니가 막 해주시는 밥을 점심, 저녁으로 먹으니 오랜만에 집에 돌아와 엄마가 막 지어주고 챙겨주는 밥을 먹는 것 같이 든든하고 따뜻했다. 음식도 그런 느낌도 중요한 것 같다. 음식의 속성이 그렇지 않다 해도, 따뜻하게 남아 있는 것 같은 그런 기분, 힘나는 그런 기분 말이다.



다음은, 수위아저씨. 늘 우리에게 열쇠를 챙겨주시고, 식사를 거를 때 식사비를 챙겨주시는 감사한 분이다. 손재주도 좋으시고 미소가 아름다우신 분이다. 지난 번 아드님도 봤지만, 아저씨만큼 인물이 흰칠한 친구였다. 일주일 내도록, 다음 주에 있을 크리스마스 장식물을 만드시느라 바쁘셨다. 베트남에서는 집 앞쪽에,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면 장식물을 직접 만든다. 이 장식물은 크리스마스트리나 니스보다는, 성당에서 모시는 성물에 가깝다고 생각하면 된다. 수위아저씨는 말구유에 누워계신 아기 예수를 만드셨다. 스티로폼을 자르고, 다듬고, 색칠해서 말구유를 만드시고, 담장을 만드시고 나서, 준비해두신 아기 예수상과 동물모형을 함께 디스플레이 하면 완성이다. 저녁에는 조명도 켜서 훨씬 더 예쁘고 멋있다.

마지막으로는 룽 총장님이다. 룽 총장님이 늘 바쁘시고, 우리도 활동시간에는 기관을 가기에 그간 뵙기 어려웠지만, 거의 날마다 뵙 수 있던 일주일이라 좋았다. 룽 총장님이 조금 무서운 것 같다는 단원들도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룽 총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누면 재미있고 좋다. 다음에는 룽 총장님의 친구 분이 하시는 커피 집에 한 번 데려가 주시기로 구두의 약속을 받았는데, 귀국하기 전에 꼭 총장님과 함께 가봐야지 싶다.

베트남 와이는 산업체를 가지고 있다. 여기 베트남에서는 우리나라의 지상1층을 G층, 지하라고 일컫는다. 비나 강으로 인한 범람의 피해를 줄이고자 이런 건축문화가 자리 잡은 것 같다. 대개 베트남 건물은 그래서 2층 이상으로 지어져 있다. 작은 집이라 해도, 그 안은 좁은 복층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베트남 와이는 G층에는 오토바이 여럿과 베트남 와이의 차 한 대가 주차되어 있고, 화장실과 엘리베이터, 늘 우리가 식사를 하는 부엌, 수위실, 남공 여공들이 생활하는 공간이 두 개 있다. 1층에는 산업체, 재봉공장이 들어서 있는데, 이 곳 역시도 한 층 안에 좁은 복층구조를 가지고 있다. 2층에는 와이 사무실과 회의실, 립 총장님의 사무실과 라온아띠 방이 있으며, 3층에는 소강당과 발코니가 있는 구조다.



우리가 한 주 동안 한 일은, 베트남 와이의 산업체인 재봉공장에서 잔일을 돕고, 배운 것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다. 또한 아주 간단했다. 단순 노동으로, 실밥 제거 작업과 같은 것이 주가 되었고, 마지막 금요일에는 재봉틀을 배우는 시간이었다. 많은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 같아서 미안했지만, 옆에 나란히 앉아 잔일을 하고 이야기를 나누던 것이 결코 우리에게만 즐거운 시간이 되지는 않았을 거라 기대해본다. 비고츠키의 동료학습에서 또래가 교사가 되어 친구에게

알려주고 배우는 과정에서 사회성과 자존감의 성장이 이루어진다고 했던 것처럼, 미숙하고 서툰 시간이었지만 공장 친구들에게도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더욱 좋을 것 같고 말이다.

호치민시 KB국민은행 방문

@12월 14일

글: 김슬기 단원

와이에서 흡스쿨을 하는 일주일 중 수요일 오후에는 KB국민은행 호치민점에 방문했다. 갑작스럽고도 한참이나 늦은 방문이었지만, 반갑게 맞아주셨다. 오히려 베트남에 적응하는데 느꼈던 것들, 경험했던 것들을 똑같이 느끼신 분들과 이야기 하는 것 같아서 처음에 안고 갔던 부담은 사라지고, 즐겁게 답소를 나누는 시간이었다. 눈 깜짝할 새 두어 시간의 긴 답소를 마무리하고 두 분은 마저 업무를 마치시고, 우리는 1군에서 저마다의 불일을 보고서, 다시 만나 뵙고 풍성하고 풍성한 저녁을 사주셨다. 다금 바리와 갈비찜, 김치찌개의 한식을 1차로 먹고, 2차로는 베트남식 양념 꽃게와 가리비, 조개 등을 먹고서, 3차로 2군에 위치한 리버사이드 근처 바에서 칵테일 한 잔 썩을 먹고 들어오니 12시였다. 아마 부장님이 댁에 돌아가시면 1시가 다 되었을 것이다. 죄송하고 감사하고 즐거웠던 시간이었다. 부담스럽다기보다는 인생의 선배들과 이야기 나누는 것 같았고, 격식을 차리는 시간이기 보다는 학교 선배들과 이야기 나누는 것 같은 편한 시간이었다.

늘 이렇게 좋은 인생의 선배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는 건 기쁜 일이다. 아직 나이가 젊다는 것 말고는 가진 것도, 내세울 것도, 정해진 것도 없지만, “가능성”만큼은 꼭 차있음

을 알아보고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인생의 좋은 선배들 말이다. 우리들의 가능성이 빛나리만큼 귀하다는 것을, 그들만큼이나 우리들도 알게 되는 날, 우리도 부딪치고 깨지는 데 단련이 되어 있는 단단한 알맹이들을 가지게 되지 싶다.

한 달 만에 찾은 유치원, 그리고 벽화그리기 ^.^

@12월 18일 ~ 12월 27일

글: 황주희 단원

11월 19일 스승의 날을 마지막 활동으로 한 후 딱 한 달 만에 찾은 유치원.

스승의 날 이후 다른 일정들은 그리 빠듯하지 않아서 쉬엄쉬엄하다 다시 찾으려니 조금은 벽차기도 했다. 하지만 늘 언제나 그렇듯, 달려오는 아이들을 보면 2시간가량 버스를 타고 온 힘듦은 어느새 사라지고 기운이 다시 솟는다.



다들 우리 반 아이들이 내 이름 정도는 기억하고 있겠지? 라는 작은 바람으로 각자의 반으로 향했다. 근데 웬걸 여전했다. 아니 어쩌면 우리를 다시 만난 반가움에 더 격한 반응이었던 것 같다. 오랜만에 만나서인지 내 몸이 놀이기구인양 여기저기 매달리고, 내 이름을 수줍게 불러주던 친구도 이제는 달려와서 와락 안기기까지 한다.

요리조리보다 보니 아이들이 한 달 사이에 꽤 큰 것도 같았다. 머리에 염색을 한 친구도, 조금 더 포동포동해진 친구도, 머리를 자른 친구도, 예전에는 밥도 제대로 안 먹더니 스스로 잘 먹는 친구도, 옷도 어느새 혼자 잘 갈아입는 친구도 보였다.

유치원 마무리와도 같은 이번 일주일. 하지만 이번 일주일간은 아이들만 돌보고 있을 수는 없었다. 예전부터 원장선생님이 우리에게 부탁했던 벽화그리기를 해야 했다. 처음 벽화를 해달라는 부탁에 “뭐 그리 어렵겠어.” 하던 우리들. 근데 무슨 그림을 그려야 할지부터 난관에 부딪혔다. 우리나라 전래동화, 혹은 풍경화, 톰과 제리 같은 캐릭터 등등 다양한 의견이 나왔지만 원장선생님의 반응이 가장 좋았던 풍경화를 그리기로 했다.

장소는 1~2층 복도. 2살,3살 아기들 반과 4살,5살 아기들 반을 잇는 계단 벽면에 벽화를 그리게 되었다. 다행히 우리 팀에는 그림 그리기를 좋아하는 김슬기 단원이 있어, 밑그림은 슬기 단원이 그리고, 페인팅은 함께 돕는 형태로 벽화를 그려나갔다.

페인팅을 복도에서 하다 보니 시시때때로 아이들과 선생님의 반응을 들을 수 있었다. 처음 밑그림 그릴 때부터 선생님과 아이들의 관심은 쏠아졌다. 다들 무슨 그림인지 궁금해 하는 반응부터, 슬기 단원의 그림에 다들 한마디씩 하고 지나쳤다. 그리고 다 함께 페인팅을 해 나가자 다들 자기 반 아이들과 선생님들에게 자기가 페인팅한 부분이 어떻냐고 묻기에 바쁘

다. 다른 반 아이들은 시큰둥할지 모르지만, 역시 우리 반 선생님이 최고라는 아이들 반응 때문인지 다들 자기가 맡은 부분에 성의를 다해 열심히 했다.

김슬기 단원은 밑그림 그리기를 끝내고 주로 세세한 부분의 채색을 맡고, 김민호 단원은 나무 채색을, 김남규 단원은 주로 밑바탕 채색을, 황주희 단원은 들판 채색에 열을 쏟았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생각했던 시간보다 더 빨리 그림이 완성되어 가는 것도 같았다.

처음에는 이 큰 벽면을 다 완성시킬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지만, 다들 아이들이 그림을 다 그린 후의 모습을 보며 좋아할 반응을 생각하니 단원들 모두 한 마음이 되어 기분 좋게 그림을 완성해나갔다. 아직 그림이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1월에 완성될 그림을 생각하니, 우리 역시 궁금하지만, 아이들의 반응과 선생님의 반응이 어떨지 벌써부터 설렌다. 그림 1월에 완성된 우리의 그림을 기대하며.. 귀국보고회 때 우리의 그림을 기대해주시길:)



Hope school @12월 28일~ 30일 글 : 김남규 단원

몇 번의 일정변경이 있으면서 어렵게 가게 된 hope school. 12월 28일부터 3일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2011년 마지막 방문기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저희가 타이밍을 잘못 맞춘 듯 했습니다. 여기 베트남은 공휴일이 많지는 않지만 설 날 때는 꽤 길게 휴가를 가집니다. 10일정도의 휴가를 가지는데요. 보통 한국에서의 구정 때 이곳 사람들이 그렇게 쉬는데 여기 hope school은 21일부터 크리스마스와 이번 해 마지막을 지나 내년 신정까지 황금연휴를 가지는 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집으로 간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원래는 학생이 60명 정도 된다고 들었는데 저희가 갔을 때는 집이 멀지 않은 학생 몇 명만이 수업을 듣고 있었습니다. 기숙사에도 집이 너무 멀어 가지 못한 몇 명의 학생들만 있었고요. 많이 아쉬웠습니다. 그래도 안 가볼수 없는 hope school 방문기를 적어 내려 가 보겠습니다. 아침에 방문하니 원장님 chu dung과 한국말 배우기에 열의가 대단한 chu chien을 만났습니다. 어디를 방문을 하나 마찬가지로 따뜻한 차와 함께 대접해주셨습니다. 간단하게 기관의 설명을 듣고 바로 학생들이 공부하는 곳으로 현장투입이 되었습니다. 여기 hope school은 젊은 학생들이 기술을 배워 사회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가르치는 곳이었습니다. 14살 학생부터 20살이 넘는 학생들까지 베트남의 대표적인 오토바이를 분해해서 조립하고 전자장치들의 구동들을 연구하고 공부하는 곳부터 에어컨, 전기렌지, 컴퓨터 실습까지 여러 방면에게 기술을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원장선생님의 설명을 듣고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솔직히 저희가 도울 일이 많지는 않았습시다. 기술적인 것들이라 쉽게 다가가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옆에 열심히 응원했죠. 학생들이 남학생들뿐이라 라온아띠의 여자단원들이 인기가 꽤 많았습니다. 자기소개 시간에도 남자들에게는 고개를 끄덕이는 정도지만 여자단원들

에게는 우리와 같은 박수가 반겨주었습니다. 이렇게 오전일과가 끝이 나고 오후에는 수업도 직접 들어보았습니다. 전구에 불이 들어오게 하는 회로도 만들어보고 학생이 만들어준 전선반지도 선물도 받았습니다. 학생들의 배움에 대한 의지가 대단했습니다. 이렇게 첫 날이 지나고 둘째 날이 되었습니다.



둘째 날은 오전에 기숙사에 남아있는 학생들과 노래를 공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국어노래도 알려주고 베트남의 노래도 배우면서 웃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워낙 웃음이 많아서 저희도 덩달아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심지어는 사전을 보고 막 웃음을 터뜨리곤 했습니다. 별 것없는 그냥 책인데도 말이죠. 오후에는 카페를 마시면서 학생들과 hope school 선생님들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저희도 소개하고 문화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군대나 가족, 서로가 가지고 있는 이야기들을 나누었습니다. 근데 그 전에 베트남어를 해도 이해를 잘 못하는 듯한 학생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성조가 들어가는 베트남어 특성상 저희 말을 잘 이해를 못하는 줄 알고 열심히 몸으로 설명을 해야 소통이 되던 학생이었습니다.

다. 그런데 이 때 알고 보니 집이 하노이 근처에 소수민족이었던 학생이었습니다. 같은 베트남 사람들이어도 언어가 달랐습니다. 저희에게는 약간 어색한 상황이었습니다. 한 나라의 다른 언어라……. 익히 베트남의 많은 소수민족이 존재하고 있는 것은 알았지만 만나 본 적이 없었던 터라 직접 눈앞에서 보니 신기했습니다. 그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이야기를 공유하는 시간은 저희들에게 너무 소중하고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3일째 12월 30일에 방문. 이 날은 저희가 한국에서 후원받아 온 과학키트를 사용하기 위해 짐을 바리바리 싸서 갔습니다. 그런데 앞에 이틀과는 다르게 너무 학생들이 안와 버리는 바람에 과학키트는 사용하지 못하고 다음으로 미웠습니다.ㅠ.ㅠ 그래서 원장님과 chien 아저씨와 카페에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역시나 우리에게 많은 조언을 해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는 분들이었습니다. 특히 저희는 베트남어를 chien 아저씨는 한국어를 서로 배우기도 했습니다. 다른 언어를 쓰는 사람이 한국말을 쓴다는 것은 어른이지만 아주 귀여우셨습니다. 저희도 베트남 사람들에게 이렇게 귀엽게 들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후에는 저희를 위해서 베트남 전통음식인 lau ca라는 생선샤브샤브와 비슷한 느낌의 음식을 대접해 주셨습니다. hope school에서 공부하는 한 요리사 학생이 만들어줬습니다.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있지만 배우고 싶은 것이 더 있어서 학교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학생이 다니는 hope school에서 3일은 너무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학생들도 만나지 못 한 것이 아



쉬웠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을 더 깊게 알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hope school에서 꿈과 희망을 가진 사람들과의 시간. 저희도 덩달아 용기를 얻고 자신감을 얻고 돌아왔습니다. 2012년 첫 날에는 기숙사 친구들과 타지에서 새해는 맞는 친구들끼리 맥주약속과 함께 아쉬움을 갖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12월 30일 YMCA Vietnam international volunteer day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를 비롯해서 베트남 YMCA에서 많은 도움을 준 학생들을 저녁초대와 함께 2012년의 일정을 공유하고 상을 주는 시간이었습니다. 참여한 친구들 중에서는 work camp에서 만난 친구들도 있었고 라온아띠 5기의 한국어수업을 도운 친구도 있었습니다. 약 20명 정도의 volunteer들은 각기 다른 모습과 다른 활동을 했었지만 그 안에 가지고 있는 마음들은 하나인 듯 했습니다. 저희도 그 사이에 끼어있다는 것이 사뭇 즐거웠습니다. 그렇게 저희 2011년의 라온아띠도 마무리를 지어 가고 있었습니다.



제작: **RAONATTI 6TH VIETNAM** ★

